

어울림

조화로운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여는

제 8대 여학생 협의회

1995년 6월 15일(목요일) 제 2호



내가 철들어 간다는 것이
제 한몸의 평안을 위해
세상에 적당히 길드는 거라면
내 결코 철들지 않겠다

오직 사랑과 믿음만으로
굳게 닫힌 가슴 열어내고
벗들을 위하여 서로를 빛내며
끝까지 함께 가리라

모진 시련의 세월들이
깊은 상처로 흘러가도
변치 않으리 우리들의
빛나는 청춘의 기상

우리 가는 이 길의 한생을
누구 하나 안 알아주어도
언제나 묵묵히 신명을 다 바쳐
제자리 지켜내면서

진짜 의리라는게 무언지
참된 청춘의 삶이 무언지
몇마디 말아닌 우리의 삶으로
기꺼이 보여주리라

/ 50만 여학우의 자랑, 2천만 여성의 희망 / 제 1기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출범

50만 여학우의 단결된 힘으로 역사 속에서 살아숨쉬는 여성들의 뜻을 기리며

95년 통일원년과 함께 전여대협이 그 첫출발을 했습니다!!

● 제1기 의장 : 경희대 제9대 총여학생회장 이 선희

- 87년 서울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 발족 이후 각 지역여대협 발족
- 88년 매춘 율령제 반대투쟁, 주한미군철수를 중심으로 AIDS 추방운동
- 89년 평양축전 제7센터 참여 및 민족통일 여학생단 조직, 활동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 결성
- 92년 김 보은, 김 진관 석방 투쟁, 성폭력 특별법 제정 투쟁
전여대협 제1기 통일선봉대 활동
- 93년 윤 금이씨 살해미군 처벌 투쟁, 주한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공동 발족
- 94년 양 애리 학우 구명운동, 전여대협 제2기 통일선봉대 활동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가입
- 95년 제1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건설

1995년 5월 5일 민족 경복대

방학 중 연대활동

올 여름농활엔 여농반 활동 어떨까요?

1학기를 마무리하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맘때면 많은 재학생들이 떠올리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비오듯 땀을 흘리며 꾸그리고 앉아 매어도 매어도 끝이 보이지 않던 콩밭과 새참 후에 주욱 들어키던 막걸리 한 사발... 농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생각나는 에피소드 한 두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농활에서 근로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활대원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또다른 부분은 바로 분반활동입니다. 농활의 4개 분반(아동반, 청소년반, 여성농민반, 청장년반) 중에서 여학생협의회는 여성농민반(이하 여농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농반 활동에 있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여성농민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얼마전까지도 '여농반'이라는 명칭 대신에 '부녀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여성들이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주체적인 자각이 낮았음을 보여주며, 그러한 이면에는 사회적 인식, 즉 여성의 노동력을 실질적이며 남성과 동등한 노동의 주체로 평가하기 보다는 남성이 행하는 노동력에 있어서 하나의 보조자적인 역할로 규정하는 것이 크게 작용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성농민'이라는 명칭이 타당한데도 '농가주부' 혹은 '농사보조자'로 규정함으로써 여성농민문제의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농민을 노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고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성농민이 담당하는 농업생산노동·가사노동이 도시여성의 직장생활·가사노동과는 그 성격과 수행방법이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도시취업여성의 경우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어 있으나 여성농민의 경우 농업생산과 가사노동이 공간이나

내용면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같은 공간에서 식사 준비와 가축사료 준비함, 자녀를 돌보면서 농사일을 함) 엄연히 농업생산노동을 하는데도 농가주부로 인식되며 농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노동생산성도 낮은 상태에 머물게 되고 자기 직업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적 노력을 망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허위의식은 오랫동안 농촌사회에 확산되었고 여성농민들에게 내면화되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여성농민의 낮은 의식 수준보다는 오히려 여성농민을 가정주부로 규정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주의하의 여성노동력 착취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농민의 상황을 알고 올바른 방향의 여농반 활동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호변방문을 통해 여성농민대중이 갖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여성농민의 끈질긴 생명력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임을 배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정을 쌓으면서 여성농민의 현실을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형식에 얽매인 모임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갖고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정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마을잔치 등의 행사에 여성농민이 주체적,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대학생들과의 일상적 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상에서처럼 농활 속에서의 여농반 활동은 여성농민의 현실을 이해하고 여성농민과 학생간의 연대를 이룰 수 있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농촌활동을 통해 한국여성문제를 고민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여농반 활동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성 공동체의場 기지촌 활동

최근 전사회적으로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상처이자 여성의 아픔이 기나긴 시간 덮여 있었지만, 이제라도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다는 것은 무척 소중한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하루평균 5건, 연간 2000여건의 미군범죄--그 범죄의 대부분의 피해자는 바로 기지촌 여성들입니다. 더이상 그들을 피해자로 남겨둘 수만은 없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어나가는 값진 활동인 기지촌 활동을 소개합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노동력이 2차적 노동력으로 규정되고 저임금직으로 위치지어지는 임금위계는 여성인력의 매춘으로의 유입에 중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식민지 사회의 모순과 중첩되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기지촌입니다. 그리고 식민지라는 상황이 느껴지고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는 현장에서 행해지는 봉사활동이 기지촌활동입니다.

1986년 의정부에 '두레방'이라는 여성 공동체가 문을 열었습니다.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기지촌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상담, 공동식사, 영어교실, 무궁해 땀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

하고 기지촌 여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지난 8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두레방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기지촌 여성들의 정신적 변화입니다. 특히 무궁해 땀인 '두레방 땀' 만들기 작업으로 많은 기지촌 여성들이 변화된 삶 속에서의 희망과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많지 않아 2명만이 땀 만들기를 직업으로 하고 있지만, 수많은 기지촌 여성들은 그것으로의 전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스스로 위해서 매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서울지역 여대생들의 기지촌 활동은 1991년 시작되었습니다. 두레방을 활동 근거지로 삼아 여름방학동안 두레방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기지촌 여성들의 실상을 알기도 하고 그들을 이해하기위한 나아가 고통받고 있는 '여성'을 이해하려는 값진 활동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역사를 가진 기지촌 활동이지만, 지금은 전국 대학으로 확대되었고 여대생들과 두레방과의 연계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매춘'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지촌 여성들을 도덕적 타락자로 보는 것은 그 뒤에 숨은 근본 이유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선입견·편견을 깨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여 우리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모여야만 기지촌 활동은 그 의의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노력의 주인이 되어보십시오!!

내가 느끼는 대학의 성문화

다음에 실린 두 편의 글은 '남자의 성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적은 글입니다. 교양과목인 '현대사회와 여성'(김정희 교수님) 수업에 제출된 것중에서 현재 대학 내에서 형성되어있는 성문화에 대해 여러 학우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편집없이 실었습니다. 글쓴이는 밝히지 않습니다. - 편집부 -

대학에 들어와서 한 남자를 사귀고 있다. 그와 나는 웬지 차별화되고 있다. 나는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생적이고 싶어서 나를 낮춘다. 그러나 그런 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성본위의 환경에서 살아온 나이기에 난 평등한 남녀를 지향하는 의식을 갖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내 행동은 남성본위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언젠가 술자리가 있었다. 내가 술이 많이 취했을 때 그의 볼에 입맞춤을 했다. 그 다음날 그의 표현은 "추하다"는 한마디였다. 나는 뭔가 죄지은 사람처럼 움츠러들었다. 그가 나에게 하는 행동은 우리 둘다 전혀 문제화 시키지 않는다. 남자가 하는 행동은 사회의 풍토때문인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의 사고 뿐 아니라 여성인 나에게도 성차별이 숨어있는 것 같다.

95학번 MT를 갔을 때의 일이다. 이성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닌 아주 친한 남자 친구가 있다. 그가 술에 취해 잠을 잤다. 난 그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가 계속 내 쪽으로 다가와서 자는 것이었다. 이상한 행동은 물론 하지 않았다. 단지 머리를 계속 내 팔에 파묻는 것이었다. 이것도 일종의 성폭력인 느낌이 든다. 내가 그 때 불쾌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남성이 지식인이든 비지식인이든 나이가 많은 적은 아는 사람이든 아니든 별로 중요한 것같지 않다. 성폭력이 꼭 이상한 사람에게 이상하게 당하는 그것만은 아닌것같다. (95학번)

대학은 한 사람을 완전한 인격체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공간이고 그러한 과정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대학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대학내의 성문화는 사뭇 불균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흔히 남성들은 이성교제 과정에서 여성보다 우월해야 하고 여성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Leader Complex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플의 schedule은 여성이 아닌 남성의 schedule에 맞추어지기도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각각의 인격체로 마주 서지 못하는 남성위주의 성문화—이 기울어진 모습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인식 전환이 없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과 커플은 캠퍼스의 꽃인가?

캠퍼스 커플? 이것이 나에게 준 상실감이란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흔히 C.C.라는 것이 가져다 준 교훈은 '필요성이 없다'이다. 너무 극단적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얻은 피해가 컸기에...

C.C.라는 것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나에게서 떼어 놓은 듯 했다. 왜냐하면 난 그 친구를 남자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했다. 거기에서 짝은 미움과 증오감·배신감으로 난 그 아이에게 믿음을 얻지 못했었고 그런 내 모습의 초라함에 무척 불행했었다. 나의 불행의 원인을 난 그 친구가 C.C.라는 한 가지 이유로 몰아넣어 버렸다. 그래서 그 아이와 같이 하기를 싫어 했다.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회복하기에 어려운 시점까지 도달해 버리고 말았다.

다음으로 또 다른 경우 C.C.라는 용어가 만들어 내는 '관계의 어색함'을 알게 되었다. 과 동기 중에서 어떤 친구가 교제를 신청하여 난 허락하였다. 처음엔 과 친구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 두달이 흐른 뒤 친구들이 다 알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인식된 그 아이와 나와 관계는 C.C.였다. 아니라는 말을 하기에는 너무 부질 없음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다. 장난인줄 알았고 그래서 그냥 웃어 넘겼는데, 항상 내가 어떤 무엇을 하면 주위에서 그 아이를 내세워 나에게 조건을 걸어 행동의 제약을 주었다. 그랬기에 난 그 아이를 부담스러워 했었고 그 아이 역시 예상치 못한 주위환경에 힘이 들었는가 보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조심하게 되었다.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교제의 의미를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나는 나대로의 생활에 빠져 친구관계의 교제가 너무 서먹했다. 친구란 서로에 대해 이해와 함께 도움말을 줄 수도 있고 기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전 알고 지내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색함을 느껴야 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화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제하자던 말의 출현을 원망한 적도 있다. 그로 인해 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잃었기에...

C.C. 이것이 나에게 준 의미는 두 친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이다. 물론 나의 편견에서 온 것이 클 수 있지만 대학에 넘쳐 흐르는 '커플'이란 용어의 부정확함 때문에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지 못했다. 잘못 전해지게 된 캠퍼스 커플의 용어를 다시금 재정립시켜야 된다고 본다.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급하다. 내가 그러했듯이 커플은 커플 외의 사람과 친근하게 지내면 큰일이라도 날 듯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 의식을 고쳐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캠퍼스 커플이 대학의 꽃이라는 그런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94학번)

우리의 공간인 대학 내에서 특별한 인간관계를 맺는 캠퍼스 커플은 그 관계가 매우 폐쇄적입니다. 캠퍼스 커플이 과 전체의 관심거리와 흥미거리가 되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고립되기도 합니다. 당사자들의 편협하고 폐쇄적인 관계인식이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환경 즉 주위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이 그들을 고립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같은 생활공간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더우기 이성교제의 대상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관계가 건전한 관계로 이어지려면 상대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전체로부터 이탈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개방적인 관계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노력과 함께 주위 사람들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Feminism에 대한 비판, 무엇이 문제인가?

「 들어가며 」

여성학 강의를 들으면서, 또 페미니즘에 대한 나의 의식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어떤 이는 “페미니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잘 모르지만 이런 점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서강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사회의 여성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정곡을 찌르는 말에 놀라기도 하고 비논리적인 주장에 감정적으로 분개하기도 하며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여성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른데에서도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달리보면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는가 남의 문제로 관조하는가하는 자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빈부의 격차를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과 그 불합리함을 제 삼자의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과의 차이와도 비교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관점의 차이보다도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성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의 기본적 전제, 즉 패러다임의 격차에서 더욱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처음 성차별에 대한 담론이 생성된 즈음 극소수의 극단적인 여성상위나 Free Sex, 또는 여성의 남성화가 페미니즘의 전부인양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선입견을 갖게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도 한 때 그런 것에 매료된 적이 있긴 하지만, 여성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페미니즘의 본질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페미니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많은 사람이 특히 제 삼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

비판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마음먹으면서부터 한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다.(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싶다) 그것은 지금부터 하려는 말들

이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는 일이다. 또 이 글을 쓰는 목적은 페미니즘에 대해 갖고 있는 그릇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전환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남성들의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새삼 강조한다. 그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낭비나 지면낭비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리고 본격적 논의에 앞서 또 한가지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된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쁨이다. 다시 말해 운동을 함에 있어 그것에 대한 반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 그러나 몇 개 안되는 여성학에 관련된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남학생들과 여성해방론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남성들은 모두 실제 상황이고 지금 나는 그들이 무척이나 반갑다. 따라서 나는 그들을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싶다.

여성과 남성사이에 벌어지는 페미니즘에 관한 논쟁 중 가장 기본적으로 합의해 나갈 부분은 가정(家庭)에 관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 과정이 생략되었을 때의 토론은 허공에 맴도는 말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 우리의 논의를 ‘가정’에 한정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격적인 페미니즘 비판에 대한 논의 중 전초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음을 양해 바란다.

「 가사노동에 대한 논의 」

가사노동은 타고난 조건상 여자가 맡아야 한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은 자신이 타고난 조건에 정직하게 얽매어 묶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을 숙명이라고도 하고 팔자라고도 한다. 우리 전통 의식에서의 팔자타령을 퇴역적 체념적 삶의 태도라하여 비판하고 매도해왔지만, 나는 그것을 한편으로는, 또는 적어도 일

마만큼이나마 자신의 삶에 대한 겸손한 태도나 섭리에 순명하는 슬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여자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을 얽매어 묶는, 또는 여자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얽매어 묶일 수밖에 없는 타고난 조건이란 어떤 것일까. 여자에게 주어진 최초의 숙명적 조건은 어떤 꼴로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만 생식과 대환경 투쟁이 가능한 온전한 존재태를 갖추 수 있는, 신체적 성격적으로 서로 분별 또는 대조되는 양성 가운데 한 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되리라. 현세에서 누리는 여자의 삶은 이런 조건에 본능적으로 승복 또는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꼴이 결정되어 갔을 것이다. 우선 구성원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역할의 분담을 통한 체반 분야 생산성의 극대화를 존립속성으로하는 공동체에, 상대성과의 분업적 역할 분담의 시작은 여자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다른 동물들보다 그 기간이 훨씬 긴 양육기능 등 생식기능을 수행하는 수고를 바치고 있는 동안에, 남자는 물적 생산과 외적 방어를 맡았을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여자는 자연스럽게 물적 생산에 건위 노동의 강도가 낮고 외적의 방어에 건위 위험의 정도가 덜한 가사노동의 담당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여자와 남자의 현세적 입지나 특징은 어떤 꼴로든 변모되어 갔겠지만 그런 변모도 타고난 특징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과거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일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 이유는 지금의 상태가 어떤 이유로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를 살펴본다면 “원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것이 자연스러워 옳은 것이다”라는 식의 오류는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식화시켜보면 비논리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어떤 때엔 나도 모르게 나 조차도 그런 논리를 쫓게 된다. 인류와 환경은 지금까지 상호 변화해왔고 또 한 번하고 있고 변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다. 남성과 여성의 물리력의 차이와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기능으로 인해 타고난 조건상 먹이를 물어오는 일은 남성이, 가정과 아이를 지키는 일은 여성이 해야한다는 말은 사회적 노동을 ‘먹이를 물어오는 일’로 ‘가정과 아이를 지키는 일’은 가사노동으로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다. 물론 한 부분으로 전체를 상징화시킨 단지 수사법적 차원이라는 반박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수사법 조차도 앞서 언급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데서 오는 논리적 오류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동안 인류의 업적으로 칭송되어 온 도구를 가지고 신체적 차이에 의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사회 관행을 깨는 일, 즉 인간으로 태어나 여자·남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인간으로 살아가자는 것은 본성을 억지로 부정하는 것일까? 어느 여화예성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남자로 임신을 하는 동안 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가진 사회구성원 재생산 능력이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결코 장애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가정공동체는 여성이 책임져야 한다?

“여자들의 사회적 생산 참여로부터 비롯된 가정공동체의 해체현상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여성해방의 시작과 남성우위의 붕괴라는

아직도 도도한 기세로 진행 중에 있는 '20세기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은 위험 수준을 이미 넘어선 성적 방종과 더불어 가정공동체의 공동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절대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빈부차극대화, 과소비 풍조, 배금사상 만연, 윤리적 공황 등 이른바 개발악이 양산된 것처럼 그런 부작용은 여자가 인습의 굴레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일지 않았다면 오히려 수상쩍어해야만 마땅할 필연성들 가운데 하나였다. 여자의 사회적 생산 참여, 적어도 그 상당 부분은 여자의 평등한 삶을 위한 것도 여자의 자기 실현을 위한 것도 아닌, 생존을 위한 발버둥질이 아니면 '더 많은 소유'를 지향한 탐욕 추수 현상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요즘 남성들의 배우자상을 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이구동성으로 '나의 아내만큼은 집안 살림에 전념하여 자신의 출세에 내조를 잘하는' 조신한 여성을 꼽았다면 요즘은 직장을 가진 여성을 더욱 선호한다고 한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직장 여성을 선호하는 남성들 중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해서 그 부담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남성은 거의 없는 듯 하다. 이제는 생계의 부담을 다 떠맡을 필요없이 아내와 같이 벌면 가계소득은 많아지고 집안에서 바가지만 굶는 아내가 아닌 사회적 자아를 실현해가는 당당한 친구같은 아내라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일하는 아내를 원하는 남성들은 가사노동 중 특히 육아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나 아이들이 태어나 7세가 될 때까지 직장여성이 당하는 고통 중에는 '여자들이 사회적 생산 참여로부터 비롯된 가정공동체 해체 현상'이라는 비난도 단단히 한 몫을 차지한다.

여기서 잠시 작자인 유순하의 논의과정처럼 가정(家庭)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1차적으로 사회화되는 공간이다. 또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그런 가정의 경제적 책임은 남자가, 그 이외의 모든 책임은 여자가 져야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경제적 책임과 그 외의 책임을 분리하는 것이 극도로 고정화

되고 그 사이의 연계점들을 잃어가는 요즘 우리는 어떤 부작용을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어머니의 치맛바람'으로 대표되는 가족이기주의와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해버린 부성(父性)의 상실이다. 앞서 말한 요즘 남성들의 의식변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푸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 구성원인 부부가 함께 책임지려는 자세에서 해체된 가정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현대사회가 점점 기계화·비인간화 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이다. 하지만 그래서 가정은 바깥에서 기계적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성원들을 다독여주어야 하고 우리 인간에게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을 조성해주어야 하고 그것은 가장 인간적인 모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장은 오류가 있다. 여기서 모성(motherhood)이란 것은 신비화 되고 미화된 구석이 적지 않다. 제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어야 하는 물나는 모성은 동물적 모성과 함께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성스러운 모성이 강요되고 있지만 그것은 조선시대의 일녀 이데올로기처럼 여성의 일방적 희생은 목적으로 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 또 그 이데올로기는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사회의 문제를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서 얼버무려 덮어야 한다는 개인주의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만큼 사적이고 소비적 기능을 하는데에서만 가정이 기능을 모두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단위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성만이 가정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아닌, 남성도 가정이라는 공간의 일주체로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나오며」

1. 여성해방운동에 관하여

여성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진정한 휴머니즘의 세상을 목표로 하여 뛰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값진 지향점이라고 하겠다.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 페미니즘이 '여성상위'나 '남성적대'로 잘못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선의 추구 이외에 우리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여성주의적 시각'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말도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틀이 찍어낸 결과물이다. 남녀의 대립이 아닌 조화를 통해 인간해방을 향한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인용된 Text에 관하여

위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으로 인용된 글은 모두 유순하의 「한 몽상가의 여자론」(서울: 문예출판사, 1994)에서 발췌한 것이다. 유순하의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발췌한 부분은 지금까지 남성들과 많은 토론이 있었던 부분이며 따라서 보편적인 남성들의 의견이라고 간주한 부분이다. 따라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여 여성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한 사람의 글을 보고 비판을 하는 가운데 좀더 풍부한 의견을 듣지 못한 것은 인정해야 하겠다.

3. 진정한 토론 문화의 형성을 위해

여성해방운동에서의 이 '운동'이라 함은 문제를 개인적으로 풀려고 했을 때의 한계로 인해 더이상 해결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문제를 사회화하여 좀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방법이다. 따라서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가장 좋지 못한 자세라고 하겠다. 너무 감정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을 조금씩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바로 이 글을 쓰게 된 목적 중의 하나이다.

여학생협의회 부회장 송혜라

Feedback을 받습니다. 위 기획기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거나 고칠점을 지적하고 싶은 분은 A4 1장 정도의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십시오. C관 2층 복도 끝, 제 8대 여학생 협의회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과의 여성 학회는...

생물학과 여성학회 '용근자리'

91학년에 의해 형성된 '용근자리'는 '용글다, 용골차다'는 말에서 그 이름을 따와 학회명을 지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용근자리'는 용고집에서 뿔뿔이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자주 한다. 학회가 형성된 초기에는 92학번들을 중심으로 학회가 운영되었고 올 해에는 5명의 95학번이 신입회원이 됨으로써 11명의 학회원이 만들어가는 거대한 조직이 되었다. 어떤 학회이든 학회장 한사람만의 활약으로 학회가 잘 이어져나가는 것은 어렵듯이, 용근자리는 4명의 4학년이 탄탄히 끌어주고 후배들이 적극 참여하여 모두 함께 용근자리를 더욱 알차게 만들어 가고 있다. 학습은 95학번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고, '대학생 문화에 대한 태도' '텍스트를 읽는 자세' '캠퍼스 내에서의 성문화' 등의 내용을 다루어왔다. 용근자리의 계획은 지금까지의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집을 만들어 보는 것과 생활에서 다루어보고 싶었던 주제들을 골라 2학기에 토론회 보는 것이다. 더하여 문학작품들을 접하면서 토론을 해 볼 계획을 갖고있다. 학회원간의 인화단결로 더욱 발전된 모습의 용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관계를 통한 객관성 확보”

여성주간맞이 강연회를 듣고

신방과 94 황 선태

「여성의 눈으로 문화읽기」라는 제목과는 걸맞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된 변영주 감독의 강연은 영화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여러모로 뜻 깊은 강연회였다. 사실 난 그의 작품 중에서 기생관광의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I'을 보았을 뿐이지만, 작품 자체로나 변영주 감독의 이력을 볼 때 상당히 관심이 가는 인물이었다. 특히 다큐멘터리를 직접 찍고 있는 사람은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다행히도 그녀는 이부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 주었고, 그 내용은 내게 아주 인상적이었다.

우선 '관계'의 중요성이다. 난 다큐멘터리에서 카메라의 시선이 관찰자로서, 제 3자로서 머물게 할 때 가장 객관적

일 것이란 생각을 했었는데, 그녀는 '관계'를 통한 객관성 확보를 이야기 했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현실을 보여준 '낮은 목소리'에서 카메라는 관찰자로서 머물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 카메라가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한 부분이 될 때 비로소 영화속의 내용은 객관성을 확보한 즉 할머니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그녀의 주장과 그녀의 방식은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다큐멘터리의 객관성의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 인상깊었던 것은 '왜'라고 하는 끊임없는 자기 질문이다. 솔직히 나는 영화를 할 때 '어떻게'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왜'라는 문제는 당위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간과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대로 영화제작에 있어 이 '왜'라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이것은 자기 내부에서 하나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세울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자신을 끊임 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독으로서의 그녀의 생각은 내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강연 전에 가졌던 강연 내용(여성의 눈으로 문화읽기에 걸맞는)에 대한 나의 기대와는

'씨줄과 날줄'로 짜는 아름다운 천 #####
철학과 여성학회 #####

철학과는 문과대 중에서도 여학생 수가 무척 작은 과에 속한다. 때문에 매년 신입생이 들어오면 선배들과 함께 여학우 모임을 하고, 그 이후도 주로 생활단위에서 자주 모이게 된다. 그래서 더욱 따로 학회라는 한 단위를 필요로 하거나, 한 학회안에 여학우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 무척 부담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각자의 생활영역들이 확실해지면서 후배 여학우들끼리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선후배 간의 모임도 일회성으로 그 의의가 떨어지게 되었다. 때문에 그 전에는 어디서든 모이는 곳이 바로 여학생 회의장이었던 것이 이제는 서로간에 어떤 공통된 문제의식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출발점이다.

늘 여성학회에 대한 요구와 고민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선뜻 실현되지 못한 학회형성이 이번에는 95학번을 중심으로 꾸려지게 되었다. 단지 여성학회가 생긴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그 이전 선배들이 단순히 생각과 말로 끊임없이 고민해왔던 것을 정작 후배들은 모여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스러운 것은 남학우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이다. 숫자로 남학우가 더 많다는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주로 학문적·사회적으로 여성학에 관련한 문제, 여성문제를 주로 다루다보니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열의와 정성은 작지만 무척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철학과 여성학회의 이름은 '씨줄과 날줄'이고, 현재 여학우 3명, 남학우 6명, 참관자 1명, 예비학회원 2명이 모여있다.

이렇게 모인 '씨줄과 날줄'은 3월 29일 예비모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번에 걸쳐 모임을 했다. 어떤 하나의 교재로 하기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모아져, 매주 학회모임이 끝나면 그 다음 주제를 잡은 뒤 발제자를 정하고 참고서적은 그 발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각자 같은 주제를 조사하고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오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여성다움·남성다움의 문제, 신체구조의 차이에 따른 남녀의 성차, 연애관·결혼관, 매매춘에 대하여, 기지촌과 정신대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토론했다. 물론 그 넓이와 깊이를 따지자면 철학과 여성학회는 무척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학습에서 다루었던 주제 하나하나를 참 진중하고 실감있게 고민하고 얘기했던 것들이다. 이런 작지만 소중한 노력들이 모여 씨줄과 날줄, 여성과 남성이 함께 생명력있는 아름다운 천을 짜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제 막 하늘을 향해 고개를 치든 새싹에게 많은 격려와 박수를 부탁한다.

무관한 강의였지만, 현재 한국 다. 끝으로 이런 시간을 마련
의 여성문제를 다룬 영화감독 해준 여학생협의회에 감사의
으로서 그녀의 생각을 들을 수 말을 전하고 싶다.
있었기에 소중한 시간이 되었

여성 공동체 기지촌 활동

선배에게 듣는 얘기 ★ ★

'88 사학 조향숙

옛날옛날 한 왕이 살고 있었다. 이 왕은 통치를 잘하기 위해 세상에 나온 모든 책을 섭렵하여 읽어야만 했다. 그러나 매우 게으른지라 책을 읽을 엄두는 내지도 못했다. 그래서 하루는 유능한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간단하게 몇권으로 압축해 오라고 했다. 학자들은 밤을 새워 책들을 읽고 요약해서 대역섯권으로 해다 주었더니 그것도 읽기 싫은 왕은 한권으로 다시 압축하라고 했다. 학자들이 다시 한권으로 압축했으나 왕은 한줄로 압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몇날 며칠을 고민한 학자들은 그 모든 책에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압축하였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 즉 그 학자들이 생각한 만고의 진리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 였던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한창 나이에 세상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영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 인생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대학을 졸업한 지 만 3년, 아직 청장년기의 한창 나이에 있는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때때로 세상이 만만해보이기도 하는 나이이다. 사회생활에서 부딪치는 힘겨운 일들은 대학이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였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대학이 나에게 준 가장 큰 것

은 나 이외에 '남'이 있다는 것이다. 내 주위에는 무척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 저곳을 찾아 다녔던 것이 내 대학생활의 가장 큰 부분이었다. 농활, 탁아활동, 학회, M.T., 답사... 모든 것이 혼자일 수 없는 여러사람과 어우러져야 할 일이었고 그 속에서 다른 다람들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

현재 내가 근무하는 곳의 정식 명칭은 '노후복지개발연구소'이다. 이제 갓 한살이 넘은

로그래미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과 원하는 곳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연구소 자체적으로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여름부터는 '노인 주택 실태조사 및 수리'라는 제목으로 자원봉사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재단 '영산'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팀을 이루어 노인들이 사는 주택의 실태를 틈틈이 조사하고 여름방학 동안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인대학에 가봐도 할머니들이 90%이상 어느 곳에는 100% 모두가 할머니인 경우도 있다.

모든 인간은 유년 시절엔 네발로 기어다니고 청춘기에는 두발로 서서 일하며 노년기에는 몸에 힘이 없어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 누구나 피하지 못할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그 인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삶을 영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의 우리는 유년기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자식사랑을 과잉으로 하고 청년기를 지나치게 즐기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저녁엔 세발이 된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무시하면서 노년기의 분들을 냉대하고 경원하지는 않는지... 누구나 노년기엔 지팡이가 필요해지지 않을까? 육체의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와 같은 존재를, 이를테면 사랑과 관심과 따뜻한 배려같은 것 말이다. 여러분이 그런 따스한 지팡이가 되어 보는 것이 어떠할런지.

** 이 지면을 빌어 지난 가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친구가 되어준 사학과, 영문과, 탈반의 국문과 94학번 남학우, 화공과 등의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누구나 노년기엔 사랑과 관심의 지팡이가 필요하다"

연구소이지만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어려운 노인들을 직접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위해 일하는 분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노인대학 프로그램, 노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전문인 교육프로그램, 자기개발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 실행은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동안 서강대학교에 와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고 여러 후배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나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노후복지개발과정 일부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자원봉사프

집을 수리(수도꼭지, 도배, 형광등 갈기 등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까지 포함됨) 하는 것을 말한다.

빈부의 차가 극심해져가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나 할머니들의 문제는 매우 크다. 전쟁으로 얼룩진 우리의 현대사에서 홀로된 할머니들이 많기도 하지만 할아버지들 보다는 경제력이 없을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7~8년 오래살고 결혼은 2~3살 위의 남자와 하기 때문이다. 즉 평균적으로 할머니들이 10년 동안 혼자 사는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 우리 할머니들에게 개가를 한다는 것은 아주 큰일 날 소리였다. 그래서 노

여성주간을 정리하며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I'의 상영을 마지막으로 여성 영화제의 막을 내리고 다양한 문화행사로 가득했던 5월을 보냈다. 지난 5월 16일부터 26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정하고, 7천 서강학우들에게 여성문제(비단 여성만을 위한 한정된 의미가 아닌)를 다양한 시각으로 제기하여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행사를 준비했다.

물려진 역사 속의 여성을 알리고자 '인물 여성사', 지자체 시대를 맞아 '여성과 정치' 그리고 가정 내의 폭력문제 '아내구타'를 주제로 의기촌에서 16일부터 19일까지 기획전을

열었으나, 대다수의 학우들이 아내구타 사진에만 흥미를 두고 대자보 내용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어느 곳에 관심이 집중되었건 간에 이번 사업이 이 땅에서의 여성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화두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22일 열린 강연회 '여성의 눈으로 문화읽기'는 감독으로서, 여성으로서의 변영주씨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정신대 할머니들의 현재'가 갖는 의미와 그것이 왜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보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강연내용은 정신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겐 더욱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뜻밖에도 강연회에 많은 남성들이 관심을 보여 주었고 이는 여성운동이 여성만의 것,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성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의식확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동제 기간 동안 열린 전통 찻집에서 판매예정이었던 '두레방 빵'이 각 대학의 대동제에 맞춰 수요급증으로 공급이

되지않았던 상황을 겪으면서, 단지 이벤트 차원에서 기지춘 여성들을 떠올리는 안일한 모습을 배제하고 진정한 '우리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제 8대 여학생협의회가 준비한 '95 여성주간은 서강 여학생협회의 고민내용과 해결방안의 지향점을 학우들에게 알린 기회가 되었다는 데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바램은 진정으로 평등하고 남녀가 조화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노고언덕에 자리잡았으면 하는 것이다. 함께 봄물을 트자.

여학생협의회 문화부

사진의 속의

여성 주간

사진전 '아내구타'
 기획전 '인물여성사'
 '여성과 정치'
 어린이 대동제
 대동제 개막식

